

“이제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힘 모아야”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호남 민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10일 확정된 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제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5·18 단체 관계자는 이 지사의 본선 직행에 대해 “민주당원은 물론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도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본선 승리를 위해선 경선 이후의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 표명과 향후 행보가 무척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청년층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지사를 비롯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교육 정책 대결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시대 종식을 위해 여야 후보가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호 전총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이 지사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소년군 출신으로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민, 노동자,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다만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안보인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농업,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본선에 앞서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한 농업, 농촌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당원 정권교체 위기감 느껴 본선 승리위해 이 전 대표 행보 중요 여야 주자들 교육정책 실종 아쉬워 서민·노동자·농어민 대변 정책 기대 2030 유권자 표심 공약 내놓아야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체에 몸담고 있어 정치적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야 후보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서연 전대신문 편집국장은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면서도 “여야 후보들

이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등록금 인하 등 교육 분야 정책

대결 실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조 편집국장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본선에 나서게 될 여야 후보들이 대학생 등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공약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이재명 본선 직행’과 관련해 “민주당원,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도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는 본선이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더는 서로 따지고 싸우지 말고 본선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원팀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낙연 후보가 경선 패배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선대본부장을 맡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며 “경선 이후의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 표명과 행보가 무척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캠핑 전략위원장 민형배, 광주·전남 선대본부장 이형석·주철현

호남의 이재명 사람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이재명 사람들’도 주목받고 있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민형배 의원(광산 을)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전략위원장을 맡아 맹활약을 했다. 또 이형석 의원(북구 을)과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광주와 전남 선대본부장을 맡아 구슬땀을 흘렸다. 윤영덕 의원(동남 갑)은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지역 민심의 창구 역할을 했다. 고흥 출신에 순천 매산고를 나온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을)이 비서실장을, 광주 출

신에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한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 을)은 수행실장을 맡아 이재명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활약했다. 여기에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지낸 강위원씨가 비서실 일정 총괄을 맡았다. 그는 올해 1월 이 지사의 5·18 국립묘지 단독 참배를 기획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언론인 출신의 정진욱 대변인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 지사의 입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지사 측면 지지 그룹인 ‘희망 22’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우 전 JC 중앙회장과, 지혜의 숲 전 대표를 지낸 황정희씨도 지역 조직 부분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출신들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출신의 최용선 인재영입지원단장과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출신의 이상현 상황실 부실장은 이재명 캠프 내의 실무진 가운데 인재로 꼽힌다. 40대의 최용선 단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표실 총괄 부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조일출씨도 조직 전략실 총괄 부실장으로 활약했다. 손금주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그룹들도 이재명 캠프에서 알려지지 않게 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관리자 이미지 못 벗고 강력한 리더십 아쉬움

이낙연 대권 도전 실패 이유는

‘사면론’ 국민 통합 카드 치명타 네거티브 등 전략 부재도 한 몫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마무리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러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유력 대권 주자로 주목받았던 그는 경선 과정에서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직 사퇴까지 함에 따라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최장수 총리(2년 7개월)로 재직하던 그는 꼼꼼한 일처리로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국회 행정부질에서 야권의 공세를 치밀한 논리 및 재치있는 입담으로 돌려 세우며 지난해 중반만 해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등 여러 주자 가운데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하기도 했었다.

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중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물론 민주당 당권까지 장악하면서 당 내외에선 ‘여대남’ (여차피 대권은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리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코로나19 사태 및 부동산 대란 등의 악재 속에서 민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면서 ‘대권의 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높은 지지율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특유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새해 들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국민통합 카드로 내세우면서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읽는데 실패한 것이다. 사면론 후폭풍과 함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는 그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지율 선두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그의 대권 무대가 되어야 할 대표 자리가 관리형 리더십을 확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는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경선 초반 그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낮았지만 결국 거기에서 그쳤다. 만기 친박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으로 끝난 ‘명박대선’ 등 전략 부재의 한계를 보였다. 그의 메시지는 진중했지만 민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의 정치 무대 퇴장은 남무현 호남 정치의 현실을 뒤돌아 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호남 정치는 수도권과 영남, 충청에 밀린 지 오래고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대권 유력 주자도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의 대권 도전 실패는 또 다른 호남 정치의 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민주 성지 호남권에 구애 ‘진보·중도’ 공략

광주서 오늘 1차 토론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컷오프를 통과한 네 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1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의 첫 일정을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 성지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권에 애정을 보임으로써 ‘진보와 중도’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를 찾아 무릎사과를 한 것은 물론, 소

속 국회의원들에게 호남에 제2지역구를 갖도록 하는 등 ‘서진정책’을 구체화해오고 있기도 하다.

일단 1·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원희룡 전 제주 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간 4강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본경선은 막판까지 최종 순위를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 전 의원과 원 지사가 얼마나 뒷심을 발휘하며 4강전을 뒤흔들지가 변수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심(黨心)의 향배다. 본경선에서는 일반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1차 예비경선(20%)과 2차 예비경선(30%)보다 당원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말까지 임당만 책임당원을 포함, 50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이 본경선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6·11 정당대회 이후 3개월여 만에 무려 20만 명이 추가됐다.

한편, 국민의힘 본경선은 오는 11월 5일 진행되는 대남 1~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모바일·ARS) 및 3~4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50%를 반영해 합산한다.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조항으로 진행된다. / 최권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 1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지 4층 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아파트 집단사거리코너 먹자골목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보1억8천만원 월6백4십만원 매입 후 월세 상향 조정이 매16억5천만원
- 2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유림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군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됨, 소형 승강기 설치 남향에 경관수려 교묘요지 시장인접 토지4,220㎡(1,276평) 매㎡ 6십 5만원
- 3 전원주택내, 10여채 단지조성용의, 선산묘터 가능**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군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텔라블록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목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채 조성 가능
본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묘지 조성가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 4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곡, 방죽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군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네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성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목장정, 펜션 다목적 사용자,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8만원
- 5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군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용달실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지 최상㎡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명주빌딩)
대표 김홍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1년 10월 7일 주주 총회결의로 1주의금액 약 10,000원의 주식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의 주식1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1일
주식회사 휴본(20111-0645148)
광주 광산구 목련로303(신가동)
대표이사 김동호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나병식(1947. 2. 24. 생. 2021. 5. 11. 사망, 최후 주소: 광주 서구 윤천로154번길 12, 101동 709호(쌍촌동, 명지아파트)) 상속재산의 상속 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년단856호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노용숙, 나수경, 나혜정, 나형갑
신고장소: 광주 서구 치평동 107, 107동 1202호(지평동, 대우금호아파트), 나수경
공고기간: 2021. 10. 11. ~ 12. 21.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분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화 평 676-6511	• 풍 암 603-0311
	• 치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